

시화호 조력발전 CDM사업 승인

산자부, 국내 5번째로 ... 독자 추진으로 온실가스 31만톤 감축효과

산업자원부는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국내 5번째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승인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아이가 참여한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은 이미 승인된 4건의 CDM사업과 달리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 부담국 소속기업의 참여없이 국내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CDM사업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은 25.4MW 용량의 터빈발전기 10기를 통해 연간 55만2700MWh를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CO₂ 31만593톤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을 포함한 5건의 CDM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3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9%에 해당하는 연간 CO₂ 1107만톤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DM 사업 참여자가 국가 승인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CDM사업 등록절차가 최종완료되며,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은 CDM 집행위심사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6/01/27>